

마 르 코 복 음

마르코는 자기 복음서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물음에 답한다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 그렇지만 그 질문에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에 관한 이론적인 교설이나 논의로써 답하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의 실천과 활동을 소개한다.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한다. 따라서 마르코 복음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아듣는 일이다. 그러자면 예수님께서 펼치신 활동의 전체적인 구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실천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따라 메시아로서의 계획을 실현하신다. 지배권력을 되찾겠다는 메시아관과 겨루신다. 그때는 메시아가 승리하는 왕으로 와서 유다 국가를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옛 영화를 되찾게 하리라는 생각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관은 종교 이념으로 뒷받침되고 전통이 되어 사람을 억누르는 내적 구도를 아무것도 바꾸어 놓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더욱더 다져갈 것이다. 이 갈등은 예수님께서 벌이신 활동이 당시 유다 사회와 빛은 갈등으로 구체화한다.

예수님께서 펼치신 모든 활동은 하느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활동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사실은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나타난다. 즉, 권력이 섬김으로 (정치 분야), 상거래가 나눔으로 (경제 분야), 소외가 현실을 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이념 분야) 바뀌어지는 데서 나타난다. 예수님의 활동은 모든 사람이 사랑과 형제애로 평등해지는 새로운 사회를 제안한다. 이 제안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자기네 권력과 재력의 본부로 삼고 있는 특권 지도층의 거센 반대를 불러일으킨다. 그 대결의 결과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상태로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신다. 예수 부활은 당신을 죽인 사회질서와 세계질서를 단죄하는 선고다.

마르코 복음서는 기쁜 소식의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저자는 자기 작품이 완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 작품을 끝맺음 하려면 독자가 뚜렷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이 책을 계속 써 내려가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독자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즉 예수님을 인간에게 충만한 생명을 주고 인간을 온전하게 살리시는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당신 초대를 받아들여 부활하신 당신을 만나러 갈릴래아로 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1장 14절부터 마르코 복음서를 다시 읽는 데 있지 않고, 하느님 나라가 온다는 희망을 끊임없이 거듭 솟아나게 하는 실천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받는 데 있다.